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 길 열려... 광주·전남 기대감

‘지역상권 상생·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지역상권활성화구역 점포수 100→50개로 완화 “시·군·구별 지역 특성 반영한 전략 수립 서둘러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침체한 광주·전남지역 골목상권 회복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이 크게 완화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그동안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밀집된 점포수 기준을 일률적으로 100개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중소도시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겪어야 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밖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고, 인구 소멸 지역은 상권 쇠락으로

점포수 요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9월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만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지역은 지역상권활성화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실제 전남지역은 통계상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나주시, 무안군 등 18개 시·군이 ‘인구감소지



역’으로 분류돼 있다. 여기에 광주광역시 내에서도 동구는 인구 10만명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상가 공실 증가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호남을 대표하는 충장로 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한 전문가는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광주와 전남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 수립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특화대상 권 개발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형 상권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하나마트·로컬푸드 178개로 늘어 농어촌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조기 사용 적극 권장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도서·산간 등 소비쿠폰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마트와 로컬푸드 사용처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전남지역에선 총 178곳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도민 생활 불편과 현장의견을 종합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 때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소비쿠폰은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면지역 하나마트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읍면지역까지 사용처 기준이 완화됐다. 이로써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마트는 기존 14개소에서 141개소로 늘었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기존 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됐다.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공지사항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돼 주민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 전남도는 소비쿠폰을 조기 사용하면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주민생활 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특히 조기 사용이 확산할수록 주민 체감 경기도 높아져 민생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판단, 도민들에게 조

기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활용하도록 한 사용처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부는 추석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총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관내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규모는 300억원이지만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은 두 배 많은 600억원 규모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금융기관 대출 기준 10억원)이다. 이는 기업이 은행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중 최대 5

한은, 광주·전남에 ‘추석 명절 특별자금’ 300억 분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최대 5억... 저금리로 자금 숨통

억원까지 한국은행이 저리로 은행에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 지역을 제외한 광양시·나주시·순천시·여수시·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부동산업, 유흥업,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수의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며 신용등급 1~3등급의 우량업체도 제외된다. 한국은행은 해당 기간 중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의 일부(최대 50%)를 연 1.00%의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 임금 지급과 원자재 대금 결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내수 회복 이끈다”... ‘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규모 우수제품,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가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다.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도 함께 실시돼 풍성함을 더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월 동행축제에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사가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온·오프라인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 민간 협업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온라인 판매에선 지마켓·무신사 등의 2만6000여개 제품을 타임딜, 단독딜을 통해 최대 30%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아마존·타오바오 같은 8개 글로벌 쇼핑물에서도 국내 소상공인 400개사의 제품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오아시스·그림 등 9개 업체에서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롯데온·쿠팡의 특별 기획전이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관면세점 4개소와 현대백화점, 행복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6곳에서 오프라인 판매전이 열린다. 롯데백화점(잠실·부산), 신세계백화점(부산), 전국 200개 동네 슈퍼도 할인 프로모션에 동참한다. 중기부는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소비 이벤트도 병행한다.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올해 9~11월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액 일부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총 10억원 상당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결제액 10%까지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시행된다. 이외에 TV홈쇼핑 7개사(공영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CJ홈쇼핑·GS홈쇼핑·홈쇼핑)의 상생기획전, 7개 카드사(비씨·KB국민·NH농협·하나·신한·롯데·현대)의 특별이벤트, 카카오페이·네이버·삼성페이 등에서 진행되는 특별프로모션이 준비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축제가 내수 소비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일상에 스며들던 소상공인 제품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

광주시, 지역청년 학자금 이자 부담 덜어준다

대학 재학·졸업생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27일부터 9월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원)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로 세

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대출금 조회 절차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며, 지원금은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 (062-613-369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만2633명에게 15억5900만원을 지원했다. /우 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야채